

# NH투자증권... 토지주택공... 코오롱글로벌... '채용형 인턴' 잘만 고르면 구직대박

토지주택공, 연령·성별 제한 없어 NH투자증권, 금융관련 자격증 우대 국민연금공단·제주항공 신입 공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기업들의 채용연계형 인턴 선발이 본격 시작됐다.

16일 잡코리아와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대기업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NH투자증권, 코오롱글로벌(주) 등이 채용연계형 인턴을 선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상반기 신입 공채를 통해 채용형 인턴 5급(사무직, 기술직) 270명, 6급(사무직, 기술직) 30명 등 300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고 기타 세부 자격요건 등은 채용직급과 분야별로 상이하다. 전형은 서류, 필기, 1차면접, 2차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NH투자증권은 2019 상반기 채용연계형 대졸 공채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IT, 디지털, Quant, 상품, 전략기획 각 직무다. 4년제 대학(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우수자, 통계·수학·금

## 상반기 기업·공기업 공채 마감일정

<b>한국무역보험공사</b> 4/26 17시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사원 채용
<b>한국토지주택공사</b> 4/19 18시
2019년 상반기 일반직(채용형 인턴) 채용
<b>NH투자증권</b> 4/30
2019 상반기 채용연계형 대졸 공채
<b>코오롱글로벌</b> 4/22 17시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b>현대엔지니어링</b> 4/18 15시
2019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b>제주항공</b> 4/22 18시
2019년 상반기 신입사원 추가채용
<b>국민연금공단</b> 4/17 18시
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
<b>현대모비스</b> 부문별 마감일정 상이
19년 신입사원 상시모집(구매, 품질, 재경)

/자료=잡코리아

융공학 전공자, 금융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전형은 서류, 온라인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무면접, 채용연계형 인턴, 최종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및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된다.

코오롱글로벌은 22일 오후 5시까지 2019년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설(토목·건축), 경영지원(기획·재무·회계) 등으로 기졸업자나 올해 8월 또는 내년 2월 졸업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다. 올해 7월~11월까지 5개월 간 인턴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이밖에 주요 기업과 공기업별 대졸 신입 공채와 수시채용이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8일 오후 3시까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화공플랜트, 건축, 인프라다. 올해 7월 입사가 가능해야 하고, 학점 3.0 이상(4.5 만점 기준), 당사 기준 어학 성적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HMAT(5월11일 예정), 면접, 신체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신규직원 공개채용을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사무직(일반, 취업지원 대상자), 심사직, 기술직(건축설비) 6급급 신규직원으로 총 223명을 채용한다.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공단이 정한 임용일부터 교육입소와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최종 합격 후 공단 본부(전주)와 전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 필기, 인성검사, 면접, 최종합격자 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임용은 6월 17일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24일 마감), 한국무역보험공사(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26일), 쌍용건설(28일),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22일), 제주항공(22일) 등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22일까지 부문(구매, 품질, 재경)별 상시모집을 통해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유사 군복 처벌 합헌, 구시대 모순



문명철

국방기자 칼럼

유사 군복 판매자 처벌 합헌결정 과연 옳은 결정일까. 유사 군복 판매는 군사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령으로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로 금지돼 왔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유사 군복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란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현행 군복단속법의 모순에 대해서는 그는 끝까지 방어리마냥 침묵했다.

군복단속법은 1973년 5월 군수품관리와 국방력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군수품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만, 모호한 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모순점을 키워 온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둘 같이 딱딱한 유연성 없는 사법부와 국방부의 맞돌 풀라보가 같아낸 것은 '국방의 효율성'이 아니라 '규제의 사수'라는 돌가루만 갈아냈기 때문이다. 아니 돌리는 사람 팔만 아플지도 모른다.

현행 군복단속법은 군모와 제복, 군화, 계급장 등 군복의 제조와 판매, 유사 군복의 제조와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대한민국 전역은 유사 군복으로 덮여있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롯데마트의 일부 매장에서는 일반 국민이 볼 때 식별하기 힘든 현용 국군

의 위장무늬가 들어간 방한피복, 기능성 의류, 가방 등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나 군 수사당국이 이를 수사하거나 처벌한 적이 없다. 국방부는 "이 제품들이 군이 가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방관했다.

그런데 주운 군화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은 지난 2월 국방부조사본부(헌병)에 고발됐다. 법이 지키려는 법익은 과연 무엇인가.

관련업계는 군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 할 뿐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한다. 법령을 엄격히 지키는 업체들은 장래 다가올 호재를 눈에 두고도 군복단속법 때문에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과 사제장비 허용 등 호재에도 발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군복을 판매한 업체는 유도탄처럼 법망을 피해 중국산 원단으로 파병부대의 피복과 군용장구류를 납품하기도 했다

일부 예비군들도 군복제령을 위반한 유사 군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며 쉬쉬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비군복제는 현행 복제령을 적용한다고 규정이 있는데 왜 모를까.

현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물품이 유사군복에 해당하는지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잘난 머리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돌 끼리는 마주치지 않는게 좋은데 말이다.

/captinm@

# 성폭력 피해학생 즉시 전학 가능해진다

## 교육부, 학폭·성폭력 보호 강화 보호조치 전 결석해도 출석 인정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학폭위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해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하면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의 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용토록 했다.

/한용수 기자

지정받은 학교가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 회를 열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전입학이 불허되면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 2018 IPP형 일학습병행 성과평가 한성대 '최우수대학' 선정

한성대학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2018년도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 대학(S등급)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성대는 2015년부터 매년 130~170명의 3·4학년 학생들이 45~50개 기업에서 4개월 이상 현장실습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2018년 24개 기업 45명이 참여했고, 올해 현재 19개 기업에 49명의 학생이 학습근로자로 근무 중이다. /한용수 기자

## 입사지원도 타이밍... "접수 2~3일 내 선호"

### 잡코리아, 인사담당자 551명 설문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사지원 시기는 접수를 시작한 지 2~3일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최근 인사담당자 551명을 대상으로 '입사서류 검토시기'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사지원 시기로는 접수 시작 후 2~3일 이내(30.7%)가 꼽혔다. 접수 기간 중간 지점 정도(14.3%)가 2위였으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류를 마감일에 맞춰 접수하는 지원자의 이미지를 묻은 결과 60.8%는 서류접수를 마감일에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미지를 담은 응답들을 보면 입사의지가 약해 보인다(10.3%), 급하게 짜집기한 서류를 제출했을 것 같아(9.1%), 준비성이 없어 보인다(7.8%)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숙명여대가 15일 교내에서 진행한 'VR면접 프로그램'에 재학생이 참여해 모의면접을 체험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대 "VR 면접"으로 면접공포 극복

숙명여자대학교는 경력개발처 대학일자리센터가 지난 15일 교내 다목적홀에서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 취업스킬향상 대비 VR면접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VR면접 프로그램은 실제로 촬영한 면접장과 면접관이 등장해 실전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별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용수 기자

## 인천대 전체 학과별 '전공진로 로드맵' 구축

인천대학교는 59개 전체 학과와 14개 연계전공에 대해 2016년부터 매년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해 인천대만의 특화된 전공진로역량 개발서 '전공진로 로드맵'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진로로드맵은 ▲전공트랙별 교과목, 진로처, 자격증, 비교과활동 안내 ▲학과 연계전공 및 국제협력형 메트릭스 연계전공 소개 ▲전공별 주요진

출 직무 안내 ▲전공별 동문취업처 및 취업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이 전공트랙을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천대는 전공진로 로드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연계 진로·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저학년 때부터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